

# 곡성군, 유학시설 확충 지방소멸 위기 대응

폐교 위기 학교 회생 지역 활성화  
농촌유학 프로그램 4년째 운영  
2025년까지 권역별 18동 시설 구축  
교육지원청·학교 3개 권역서 협업

곡성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섰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곡성유학'은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사업이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학교가 협업 추진 중으로 현재 옥과권역(오산면) 등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군은 '곡성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학생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을 조성해 왔다. 오산면에 '도담도담 유학마을'을 조성, 현재 18가구 51명이 거주하면서 곡성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석곡권역 등 권역별로 총 18동의 참여자 거주시설을 추가로 조성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과 인구정책과장, 죽곡면장 등 군 관계자가 죽곡면 삼태리의 곡성유학 프로그램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현장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곡성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학생과 가족들이 곡성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곡성유학을 통해 폐교위기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들이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사업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이어 "곡성군은 곡성유학 프로그램 이외에도 활력타운, 러스티타운, 돌아오지

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곡성=김대영 기자**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순군, 23일까지 의견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2557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방법은 화순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및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일자리 우수 참여기업 선발  
함평군, 13일까지 접수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자금 1400만 원을 지원하며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위치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분야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필요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3일까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0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 토란 재배 농민들이 토란을 캐고 있다. 토란은 저장성이 가능해 연중 출하되지만 제철인 가을에 소비가 집중되며 추석 차례상에 토란국을 올리는 전통으로 인해 수요가 높아진다.

곡성군 제공

## 곡성군, 추석 앞두고 토란 본격 출하

곡성군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역 대표 농산물인 토란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토란은 저장성이 가능해 연중 출하되지만, 제철인 가을에 소비가 집중되며 특히 추석 차례상에 토란국을 올리는 전통으로 인해 이 시기에 수요가 높아진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식자재로 이용되어 온 토란은 최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가을

철 토란탕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간토란, 토란국, 토란쿠키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곡성은 양질의 재배환경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토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생산 여건을 토대로 곡성은 전국 최대의 토란 생산지로 자리 잡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토란의 대부분이 이곳에

서 생산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토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토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토란 가공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곡성토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맛과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은 물론, 토란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미술교실 유화반' 수강생 모집

3일부터 선착순 7명 접수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관내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교실 유화반' 3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예술과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미술교실 유화반은 유화 기법의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양한 실습으

로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좌는 전문 작가가 직접 지도하며 색채의 이론과 표현, 질감 표현기법, 붓질의 다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강생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술교실 유화반 3강좌 운영 기간은 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15회차의 강의로 진행되며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수강 신청접수 기간은 3일부터 10일까

지이며 미술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수강생은 7명으로 수강료는 8만원이다. 신청서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http://sbart.or.kr)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는 하지 않고, 신청 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많은 군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참여 수강생들은 후순위로 접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061-379-3835-7)으로 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불연성마대 판매 개시  
나주시,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월부터 깨진 유리나 고철 등의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연성마대(20ℓ)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범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불연성마대란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마대로, 깨진 유리, 화분, 도자기, 사기그릇, 고무재질, 조개껍데기, 모래, 벽돌, 가위, 칼, 소량의 고철류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동안 깨진 유리나 고철 등의 폐기물이 일반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봉투가 찢어지거나 폐기물 수거작업자의 부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빗가람동에서부터 불연성 마대를 시범 판매한다.

마대는 20ℓ 규격으로 무게는 10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량제물품 판매소(마트, 편의점)에서 한 장당 3000원에 판매한다. 불연성마대의 배출방법은 대형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주시는 시범판매에서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2025년 1월부터 나주시 전 지역에서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연성마대 도입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나주시, 11월29일까지 접수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진아)에서 '2024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나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 출품 가능하며 양성평등을 주제로 사진 또는 영상 콘텐츠를 1인(단체)당 최대 1편을 이메일(najusaeil@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입선작 4명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100만 원이다.

상장과 상금은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작품에 수여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4일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공모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1-333-2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아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